

## 모시는 말씀

세상은 맑습니다. 저의 눈의 티끌로 인해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.  
그 꺼풀을 벗어 내고자 한 저의 허물의 과정을 책으로 엮었습니다.  
그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맑음과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.

『페어플레이는 아직, 늦지 않았다』를 앞에 놓고 모시는 글을 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연에 놓인 그 맑음과 정연(整然)함을 말하고 깨닫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. 저는 이번의 출간에서 제가 걸어온 그런 길들을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.

『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지킨다』라는 질타적 언성을 낸 적도 있었습지만, 그 자리에 있는 서울을 그대로 지키고자 한 『헌법등대지기』의 마음, 국가를 있는 그대로 갖고 닦고자 한 『헌법포럼』의 신념과 『법제처장』때의 소신, 그런 저의 마음의 자리를 찾아내는 과정을 엮은 『책, 인생을 사로잡다』의 편린, 새로운 역사문화적 시야를 찾기 위한 『여행, 인생을 유혹하다』의 허물.....

그 마음과 신념과 편린과 허물을 함께 품은 제 가슴의 직언을 말하고, 함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어,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기회를 만들고자,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(割愛)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아울러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각성과 실천을 이끌 수 있는 구심체의 설립에 관한 저의 구상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

부디 들리시어 교분(交分)을 나누시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.

## 이석연 드림

- 
- 모시는 시간 : 2014년 8월 26일(화) 오후2시30분(14:30)
  - 모시는 장소 :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(2층)  
[서울 중구 명동11길19(명동1가 4-1) 전화: 02-3705-5114]
  - 모시는 방법 :①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(외환은행본점과 동양종합금융 사이)  
② 지하철4호선 명동역 6번출구(명동성당 맞은편)  
③ 승용차, 지하 주차공간.

※ 책값으로 부득이 2만원을 받습니다(「책, 인생을 사로잡다」와 「페어플레이는 아직, 늦지 않았다」 두 권을 드립니다)

※ 행사관련 문의처 : 02-3472-8404, 010-9700-3660